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사회주의농촌문화건설의 본보기, 기준으로 천지개벽된
평양시 사동구역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농촌문화건설의 본보기, 기준으로 천지개벽된 평양시 사동구역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천지개벽된 농장을 보니 한폭의 그림 같다고, 농장이 21세기의 본보기, 표준으로 전면되었다고, 농장원들이 너무 좋아 잠을 이루지 못 한다는데 자신께서도 정말 기쁘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념원을 또 하나 풀어드리게 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태양상 모자이크벽화와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적비, 혁명사적교양실,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크나큰 궁지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남새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려 여러가지 남새를 많이 생산하여 수도시민들에게 공급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빛내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문화회관, 과학기술보급실, 장천원, 문화주택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조망해하시였다.



진물관리, 주변 환경 정리를 짜고드는것을 비롯하여 농장 관리운영과 경영활동을 잘하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침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전망대에 오르시여 농장의 전경을 부감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누구나 이곳을 찾게 되면 우리가 건설하는 강성국가의 휘황한 미래와 사회주의문명국의 높이를 보게 될것이라고, 작가들이 이 농장의 모습을 보면 좋은 글을 폭포처럼 쏟아낼것이라고 하시면서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은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곳이라고 거듭거듭 만족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의 요구대로 장천지구를 하나의 도시를 방불케 하는 멋쟁이농장도시로 전변시키는데 적극 기여한 농장원들과 평양시안의 일군들, 근로자들에게 당중앙의 이름으로 감사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조선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이며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수행에서 기치를 들고나가야 할 평양시가 앞으로도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맨 앞장에 서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체적으로 조망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의 모든 건축물들과 시설물을 최상의 수준에서 건설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토박식 박막온실, 궁륭식련동온실들을 돌아보시면서 남새생산과 농장관리운영정형도 자세히 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장천남

새전문협동농장이 모든 면에서 농촌문화 혁명의 본보기, 기준으로 전면된것만큼 남새비배관리와 생산에서도 전국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남새생산의 과학화, 집약화수준을 더욱 높이기 위한 사업,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며 우량품종, 다수확품종의 남새들을 널리 재배하기 위한 사업, 농장원들을 남새박사, 농산박사로 키우기 위한 사업,

원들과 평양시안의 일군들, 근로자들에게 당중앙의 이름으로 감사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조선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이며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수행에서 기치를 들고나가야 할 평양시가 앞으로도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맨 앞장에 서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새로 건설한 김책공업종합대학 자동화연구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새로 건설한 김책공업종합대학 자동화연구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자동화 연구소의 전경을 바라보시며 당에서 비준해준 형성안의 요구대로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게 연구소를 잘 건설하였다고 하시면서 멋쟁이건축물이라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원형관통홀에 들어서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형식이 새롭고 특색있

다고 하시면서 최첨단연구기지로서의 체모를 완벽하게 갖추었다고 만족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김책공업종합대학 자동화연구소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시공정형을 구체적으로 조망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과학과 인재에 대한 옳바른 관점과 입장을 가지고 혁명을 해야 나라가 흥한다고, 김책공업종합대학 자동화연구소가 최첨단연구기지답게 꾸려진것만큼 연구소운영에 펼

여한 설비들과 뿐전기재들도 현대적인 것으로 갖추어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 문제는 당에서 직접 풀어주시겠다는 은정 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이 땅 위에 과학기술로 흥하는 천하제일강국,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려는 당의 의도를 받들고 김책공업종합대학 자동화연구소건설에서 혁명적군인정신을 높이 발휘한 조선인민군 제407군부대, 제101군부대 군인건설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

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김책공업종합대학 자동화연구소의 연구사들이 가치있는 과학기술성과들로 우리 당 위업을 들어온 지난날의 전통을 이어 최첨단돌파전의 기수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함으로써 당과 조국, 인민의 기대에 보답하는 길에서 애국적열의와 헌신성을 더욱 높이 발휘해가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민족과 통일을 위한 위대한 평생

위대한 김일성주석은 나라가 분열된 첫날부터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인이다.

민족의 어버이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흐르는 이 7월, 우리 겨레는 조국통일성업실현을 위해 온갖 로고와 심혈을 기울여서 민족단합과 자주통일의 굳건한 토대를 마련해주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거룩한 한생을 더욱 가슴뜨겁게 추억하고 있다.

조국통일은 어버이수령님의 필생의 위업이었으며 절절한념원이었다.

조선민족에게 있어서 통일은 곧 운명이고 밝은 미래이다. 외세의 강요로 70년이나 분열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겨레에게는 나라의 통일보다 더 중대한 일이 없다. 조국을 통일하고 온 민족이 하나가 되어 행복하게 사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는 것은 더는 미룰수 없는 민족지상의 파제로 나서고 있다.

외세에 의해 이 땅이 두동강 난 첫날부터 민족분열을 그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며 조국통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주석이다.

남조선에서 망국적인 《단선 단정》책동으로 나라의 분열이고착되느니 마느냐 하는 엄혹한 정세 속에서 전민족적인 통일회합인 혁사적인 4월남북련석회의를 발기하시고 이끄시여

나하나 밝혀주시여 민족이 통일의 그날 까지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불멸의 조국통일3대원칙을 7·4공동성명을 통해 세상에 천명하도록 하시였다.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겨레에게 안겨주신 조국통일3대헌장, 불멸의 통일대강으로서 오늘도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과 더불어 찬란히 빛을 뿐이고 있다.

그이께서는 언제 한번 남녘겨레를 잊으신적이 없었고 통일을 위해 불면불휴의 낮과 밤을 보내시였다. 겨레에게 줄 가장 큰 선물은 조국통일이라 하시며 위대한 짐작의 마지막고동까지 통일을 위해 바치신 수령님의 그 지칠줄 모르는 애국의 마음과 열정은 불멸의 친필에도 력력히 어리여 있다.

『김일성』

1994. 7. 7.』

혁사의 그날을 전하듯 오늘도 판문점에 솟아 빛을 뿐이는 그 친필을 바라보느라 북남최고위급회담을 앞두고 우리나라의 통일이 머지않아 이룩될수 있다고, 우리 나라가 통일되면 몇해사이에 부자의 나라로 될수 있다고 하신 수령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들려오는것만 같다.

지난 세기 40년대 중반기 민족분열초엽에서부터 90년대 중반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시기에 이르는 장장 반세기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민족분열의 가슴아픈 현실에 통탄하면서도 길을 찾지 못해 암중모색 하던 수많은 남조선과 해외의



남조선의 《한겨레》신문을 보아주시며 조국통일의 사절인 문익환목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

주체 78(1989)년 4월

각계인사들을 통일애국의 길로 이끌어주시였다. 최홍희, 문익환, 윤이상, 김성락을 비롯한 남조선파 해외의 유명무명의 인사들이 그이의 숭고한 덕망과 통일경륜에 감복하여 민족 대단결과 통일을 위한 애국의 길을 힘있게 걸었던 것이다.

그들 가운데는 평생 굳혀온 반공장벽을 허물고 련공통일애국에로의 인생전환을 한 사람들도 있고 남조선의 매국적인 반통일 《정권》에 환멸을 느끼고 어지러운 과거와 결별하고 련북통일애국의 장거리를 단행한 남조선정계와 군부의 인물들도 있으며 통일애국의 길에 꽂다운 청춘과 사랑도, 둘도 없는 목숨도 아낌없이 바치며 견결

히 싸운 불굴의 통일애국투사들과 노동자, 농민들과 지식인, 기업가, 종교인들도 있다.

하기에 김일성주석을 만나뵈옵고 그이의 애국애족애민의 헌신적풍모에 감복한 한 해외동포문필가는 《김일성주석님께서는 격무를 펴셔야 하는 년로 한 몸이심에도 불구하고 37~38℃를 오르내리는 무더위속에서 온갖 퍼로도 잊은채 강행군을 하셨다. 카터 전 미국대통령이 왔을 때 서해갑문 등 여러곳에 동행했고 장시간 회담도 하셨으며 북남최고위급회담 날자가 확정된 뒤에는 이제 통일을 위한 큰걸음을 떼는것이라며 수많은 복잡한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였고 폭우가 쏟아

어버이수령님께서 바라신 조국통일의 뜻과 염원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필생의 위업이고 의지였다. 나라의 통일을 하루빨리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이루하는 것은 수령님의 필생의 뜻이었다고 하시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수령님께서 그처럼 바라시던 조국통일의 혁사적위업을 기어이 성취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수령님의 뜻과 의지가 비낀 조국통일3대헌장판철에로 온 민족을 이끄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이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통일유훈을 받드시여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두 차례의 혁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을 마련하시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탄생을 안아

오시였으며 이 땅우에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거창한 자주통일의 새 시대가 펼쳐지도록 하시였다.

조국통일과 민족의 무궁번영을 위해 한평생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위업과 불멸의 업적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하여 이어지고 빛나고 있다.

사상도 령도도 덕망도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3년전 판문점을 찾으신 그날에는 한평생 나라의 통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감회깊이 회고하시면서 수령님들의 필생의 염원을 기어이 실현하여 후대들에게 통일된 조국을 물려줄 철석의 의지를 다지시였다.

어버이수령님 탄생 100돐 경축열병식광장의 높은 연단에서 혁사적인 첫연설을 하시면서 그이께서는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잡고 나갈것이며 조국통일의 혁사적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책임적이고도 인내성있는 노력을 기울일것이라고 선언하시였다.

혁사적인 신년사에서 조국해방 70돐이 되는 올해에 북남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와야 한다고 하시면서 북남관계의 새 혁사를 써나가자고 호소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선군의 보검을 더욱 억척같이 다지시여 호전세력의 전쟁책동을 짓부시고 민족의 존엄과 안녕을 억척같이 수호하시며 겨레의 자주통일위업을 전두에서 이끄시는 백두령장의 기상에서 온 민족은 자주통일의 그날을 굳게 확신하고 있다.

불멸의 통일대강들인 조국통일3대헌장과 혁사적인 북남공동선언이 우리 겨레의 앞길을 밝혀주고 문무를 겸비하시고 민족의 자주통일운동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여 이 땅에는 머지않아 통일되고 번영하는 강성국가가 우뚝 솟아오르게 될것이다.

손송죽

용방법도 알려주시고 그의 신체와 건강운동에 적합한 실내자전거를 배려해주시였다.

이렇게 되여 박영빈동포는 따스한뜨의 집에서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운동용자전거를 건강관리에 리용하며 여생을 보내였다.

생전에 그는 고국에서 살며 일해온 나날을 외우군 하면서 『나는 위대한 수령님은 조국과 민족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현신성, 정의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고난을 맞받아나가는 완강성을 지니신 절세의 위인이시라

는것을 온몸으로 느꼈다.』고 자녀들과 이웃들, 동년배들에게 터놓군 하였다.

그는 세상을 떠날 때까지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존경과 흡모심을 금치 못해하면서 동포사회에 단합과 화목을 도모하고 조국의 번영과 통일을 위한 길에 생의 자족을 묵묵히 찍었다. 어버이수령님은 인간존중과 인간중시, 겨레사랑을 천분으로, 성덕으로 지니시고 온 민족의 운명과 행복을 보살펴주신 위대한 성인이시고 인덕의 화신이시다.

본사기자 리설

충고한 밀을과 사랑으로

위대한 김일성주석은 특이한 인간애, 열화같은 민족애를 지니신분이시였다.

한 나라의 수반이면 국가의 최고수위이지만 그이께서는 당총비서, 주석이시기 전에 사랑과 정의 인덕으로 인민을 보살피고 정사를 이끄신 민족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였다.

사람이 돈이 없이는 살수 있어도 인덕이 없으면 살수 없다는 지론이 그이의 가정철학이고 가풍일진대 인간존중과 사랑을 미덕으로

타고나신 수령님의 인정세계는 뜨겁고 지극

하고, 다심하고 옹심깊은 사랑의 정화였다.

그이의 덕망에 대한 이야기들은 하나하나가 다 인간의 뜨거운 정이란 어떤것이며 고결한 인정세계에 산다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보여주는 귀감으로 된다.

주체79(1990)년 8월 어느날이였다. 그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고국을 방문한 재조조선인동포들을 만나시였다.

구면지기인 조선인로병들을 반가이 맞으시고 한사람한사람 일별하시며 그들과 인사를 나누시는 수령님의 동포애는 각

별하시였다.

화기애애한 동포애가 차넘치는 그 자리에는 재조조선인로병회 고문으로 활동한 박영빈도 있었다.

만면에 환한 미소를 담으시고 좌중을 둘러보시면서 수령님께서는 부인들은 다 잘 있는가, 자녀들은 몇이며 조선 말은 아는가 등 안부며 생활형편에 이르기까지 세세히 알아보시였다. 그러시고는 여러분

들은 해방후 조국땅우에 공화국을 세우고 조국해방전쟁때에는 피로써 우리 혁명의 전취물을 사수하기 위한 투쟁을 벌렸다고 하시면서 준엄했던 혁사의 나날을 감회깊이 더듬으시였다.

그 자리에서 박영빈동포는 조선해방과 조국해방전쟁에 참전하고 전후복구건설에도 참가한 자기들의 공로를 크게 여기시고 높이 평가하시는 위대한 주석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였다. 그의 진정을 고맙게 받으시며 박영빈동포는 나의 동지이며 전우이며 친우라고

하신 수령님께서는 그의 건강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시였다.

남보다 체구가 큰 그의 신상에서 얼굴이 부식부석하다는 것을 대뜸 알아보신것이였다.

자기의 불편한 거동을 눈여겨보시고 심려하시는 그분께 제종이 얼마이며 심장부담이 크다고 하는 박영빈동포의 말을 들으신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지금 여든세 살인데 앞으로 10년은 더 일할수 있다고 하시

면서 그러자면 운동을 많이 해야 한다고 염려하시였다.

그날 조선인로병 모두에게 한등급이상의 군사칭호를 수여하시고 군인이 아닌 그에게는 따로 양복을 비롯해 여러 가지 옷자리를 배려하시고 기념사진도 찍으신 수령님께서는 박영빈동포더러 몸조리를 잘 하도록 위심을 기울이시는 것이였다.

그의 건강에 여러모로 마음쓰신 수령님께서는 실내자전거로 15분정도씩 운동하면 하루 30리 활보한것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운동기구의 용도와 리

설정된 문제들에 사상과 리념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접수될 최선의 합리적인 해결책이 강구되었는가도 보시면서 자자구구에 구체적인 대안을 밝혀 넣으시는 그이의 사색은 끝이 없었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문건의 마지막폐지를 넘기시였다. 그러시고는 펜을 드시였다. 미구에 도래할 중대사변의 시작을 예감하시며 그이께서는 겨레의 마음의 무게로 그 문건에 힘주어

『김일성』

1994. 7. 7.』

이라고 쓰시였다. 해당 일군에게 그 문건을 넘겨주시며 우리 겨레가 일일천추로 고대하던 조국통일은 바야흐로 눈앞에 다가왔다 고 확신과 신심에 넘쳐 말씀하신 그이께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담으시고 창가로 다가가시여 문을 여시였다.

동녘하늘에 통일의 려명파도 같이 장쾌한 아침노을이 펴여오르고 있었다.

본사기자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사 준공식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선군시대의 기념비적 창조물로 응장화려하게 일떠선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사 준공식이 1일에 진행되었다.

준공식은 《조국찬가》의 주악으로 시작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박봉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총리가 준공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선군조선의 수도 평양의 관문이며 나라의 얼굴인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사가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일떠선 것은 사회주의문명국으로 비약하는 우리 조국의 면모와 주체건축의 발전수준을 힘있게 표시하고 당창건 일흔돐과 조국해방 일흔돐을 맞는 올해를 뜻깊게 장식하는 커다란 경사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사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원대한 구상과 정력적인 형



도에 의하여 일떠선 로동당시대의 자랑스러운 창조물이라는 대에 언급하였다.

그는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

사는 선군시대의 본보기적건축물이며 우리 군대와 인민의 결

사관철의 투쟁기풍과 군민대단

세찬 열풍이 냥은 자랑찬 결실이라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결, 새로운 조선속도창조의 거

파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는

는 승고한 애국심을 안고 평양

국제비행장 항공역사를 세상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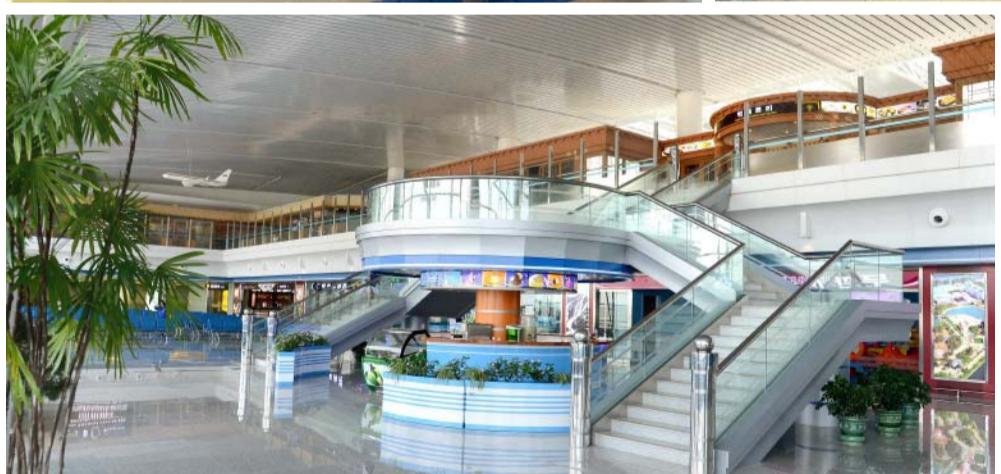
내놓고 자랑할수 있는 선군시대의 본보기적건축물로 일떠세운 군인건설자들과 위원회, 성, 중앙기관 일군들, 군로자들의 로력적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여 당중앙의 이름으로 감사를 주시는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연설자는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을 세계가 우러러보는 사회주의문명국으로 일떠세우는 것은 우리 당의 웅대한 구상이며 확고한 결심이라고 하면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부강조국건설구상과 의도를 하루빨리 이 땅에 현실로 꽂아워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행복의 래일》노래주악이 울리는 속에 준공례프가 끊기였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새로 일떠선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사를 돌아보았다.

본사기자



세계적으로 해발고가 제일 높은 곳이 어디인가? 이렇게 물으면 대답 못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어려운 소학교생들 조차 8,484m의 높이를 가진 주물랑마봉이라고 대답한다. 세계의 지붕인 히말라야산줄기의 주물랑마봉이 지구상에서 가장 높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이보다 더 높은 곳이 있다

국력

나지막한 산등성이에 위성판제종합지휘소가 앉아있는 이곳을 세상에서 제일 높은 곳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곳이 우주에 치솟아오른 선군조선의 무진막강한 종합적 국력의 척도로 되기 때문이다.

이는 바와 같이 운반로케트와 위성의 제작과 발사, 그 조종과 운영을 포함하는 우주개발사업은 해당 나라의 국력평가의 정수로 되고 있다.

위성을 개발하려면 금속재료공업과 기계공업, 연료제조기술 등 중공업부문들이 최첨단에 올라서고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우주통신기술, 소프트웨어기술 등 모든 것이 최고의 높이에 올라서야 한다. 위성개발에 막강한 기술인력과 고도의 기술수단, 막대한 자금투자, 강력한 자립경제의 뒤받침을 요구하는 것으로 하여 아무리 선진국이라고 해도 필요로 모든 것을 100% 자체로 보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는 것은 힘겨운 일로 되고 있다.

인공위성발사의 성공은 발전된 몇몇 나라의 독점물로 되어 있으며 설사 인공지구위성이 있다 해도 그 발사를 남에게 의존하는 나라도 있다.

하지만 공화국은 인공지구

세상에서 제일 높은 곳은...

면… 지금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궁지에 넘쳐 말하고 있다. 세상에서 제일 높은 곳은 우리 국가우주개발국 위성판제종합지휘소가 자리잡은 곳이라고.

의적도

위성의 설계로부터 제작, 발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100% 자체의 지혜와 기술, 자기의 자금과 힘으로 성과적으로 실현하고 있다.

이미 여러 차례의 시험위성발사와 실용위성발사로 기술적으로 어려운 궤도에 자기의 위성을 성과적으로 진입시킨 공화국의 국력과 높은 기술수준은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한세기 전만 해도 기껏해서

호미나 보습을 만들고 총대가 없어 망국노의 나락으로 굴러

떨어지지 않으면 안되었던 식민지 약소국이 오늘은 위성을

꽝꽝 만들어 쏴올리는 인공

우주정복의 길로 힘차게 내달리는 선군조선의 자랑스러운 축도인 위성판제종합지휘소. 여기에는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공화국의 굳센 존엄이 응축되어 있다.

공화국에서의 우주개발사업은 과학기술적 문제이기 전에

민족의 존엄을 건 운명적인 문제로 나서고 있다.

1957년에 진행된 첫 인공지구위성발사를 계기로 인류는

우주개발시대를 맞이하였다.

우주개발이 인간생활과 사회

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으로 세계의 상상봉에 일약 솟구쳐 오른 것이다.

『인공위성의 성과적 발사는 주체과학과 기술의 승리, 조선의 의지와 국력을 과시한 일대 사변이다.』라고 세계가 격찬하듯이 약소민족의 한탄만이 울리던 이 땅에 오늘은 우주강국의 퇴성이 울리고 있다.

얼마전 국가우주개발국 위성판제종합지휘소가 새로 일어서 나라의 과학기술과 경제발전, 국가방위에 필수적인 각종 실용위성들을 계속 쏴올릴 수 있는 든든한 도약대가 마련되게 되었으니 위성판제종합지휘소야말로 우주정복의 길로 힘차게 내달리는 선군조선의 국력을 과시하는 자랑스러운 축도인 것이다.

주물랑마봉이 아무리 높다 한들 하늘보다 높을 수는 없다. 그러나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국력은 우주에 닿고 있다.

주물랑마봉이 아무리 높다 한들 하늘보다 높을 수는 없다. 그러나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국력은 우주에 닿고 있다.

한세기 전만 해도 기껏해서

호미나 보습을 만들고 총대가

없어 망국노의 나락으로 굴러

떨어지지 않으면 안되었던 식민지 약소국이 오늘은 위성을

꽝꽝 만들어 쏴올리는 인공

우주정복의 길로 힘차게 내

달리는 선군조선의 자랑스러운 축도인 위성판제종합지휘

소. 여기에는 그 누구도 건드

릴 수 없는 공화국의 굳센 존엄이 응축되어 있다.

공화국에서의 우주개발사업은 과학기술적 문제이기 전에

민족의 존엄을 건 운명적인 문제로 나서고 있다.

1957년에 진행된 첫 인공지구위성발사를 계기로 인류는

우주개발시대를 맞이하였다.

우주개발이 인간생활과 사회

의 보편적 권리로 규정한 우주조약에도 전적으로 부합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공화국에서의 우주개발을 사사건건 죄에 걸고 못되게 놀아대고 있다. 지금껏 적대세력들은 공화국에서의 위성발사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매도하면서 온갖 비렬하고 악랄한 고립과 봉쇄, 제재를 가해왔다.

공화국은 민족의 자주적 존엄과 권리리를 지키기 위해 언제나 당당했으며 그것을 짓밟으려는 온갖 시도에 대해서는 언제나 무자비하였다.

2009년 4월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가 『광명성-2』호를 발사한다는 것을 공개하자 적대세력들은 그것을 『적대행위』로 락인하고 위성을 발사하면 『요격』 할 것이라고 떠들어대면서 술한 유도탄구축함들을 조선 동해상에 투입하기 전개했다.

바로 이러한 때 『적대세력

들이 우리의 평화적 위성에 대

한 사소한 『요격』 움직임이

라도 보인다면 지체없이 정의의 보복타격을 안길 것』이라는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중대보도

가 우주공간에 올려펴졌다.

순간 지구의 공전이 멎어버린 듯하였다. 우주공간의 대기가 얼어붙은 듯하였다. 적대세력들은 혼령이가 빠져 부들부들 떨었다.

드디어 지구를 박차고

거대한 불줄기를 뿜으며

『광명성-2』호가 우주로 성과적으로 날아올랐다. 그것은 제재와 암살책 등을 쳐물리치며 우주에 치솟아오르는 선군조선의 당당한 존엄이었다. 운반로케트 『은하-2』호의 동체에서는 림홍색 공화국기가 눈부신 광채를 뿌리였다.

이날 위성판제종합지휘소에서 『광명성-2』호발사전과 정을 목소 관찰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를 멋있게 쏘울렸다고 하시면서 만일 적들이 우리가 위성을 발사할 때 『요격』 하려고 시도했다라면 우리는 그 요격기지는 물론 중요대상도 가만놔두지 않았을 것이다. 자신께서 수령님께서 보아주신다는 든든한 배심이 있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여년 드는지 않는 백두의 산악과 같은 무비의 담력과 배짱, 의지가 있었기에 공화국은 적대세력들이 『요격』 이요, 『제재』 이요 하면서 그처럼 기승을 부렸지만 결단코 자주의 신념대로 위성발사를 단행하였던 것이다.

2012년 12월 경에 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 밑에 쏘울린 『광명성-3』호 2호기의 성과적 발사도 나라의 존엄과 영예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운 민족적 대경사였다.

우주개발은 주체조선의 불굴의 높이로 세계를 앞서나가려는 민족적 존엄과 자존심의 분출이다.

하기에 얼마전 새로 건설한

국가우주개발국 위성판제종합지휘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으로서의 우리의 지위는 적대세력들이 부정한다고 해서 결코 달라지지 않으며 우주개발사업은 그 누가 반대한다고 해서 포기할 사업이 아니라고, 민족의 존엄과 자존심을 걸고 진행하는 중대사업인 우주개발분야에서도 최첨단을 돌파하려는 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라고, 주체조선의 위성은 앞으로도 당중앙이 결심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련이어 우주를 향하여 날아오를 것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한때 미국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는 조선을 두고 대국들의 새끼에서 쪽도 변변히 써보지 못하는 가공한 처지에 있는 나라, 조선 사람들은 자기 나라의 방위를 위해서 손가락 하나 쳐들지 못하는 민족이라고 모독했었다.

하지만 오늘의 조선은 100여년 전의 조선이 아니다. 세인이 한결같이 『세계의 대국들이 조선의 비위를 맞추며 접근하는 시대가 펼쳐졌다. 선군정치가 조선민족의 존엄과 권위를 이뤘듯 최고 높이에 끌어올렸다.』고 평하듯이 선군조선의 존엄과 지위는 최상의 경지에서 빛을 뿌리고 있다.

세기의 상상봉에 올라선 민족의 존엄이 위성판제종합지휘소에 올라서여 있기에 사람들은 지도를 펼치고 세상에서 제일 높은 곳을 찾으면 의례히 선군조선의 위성판제종합지휘소가 자리잡고 있는 곳을 짚을 것이다.

본사기자 홍범식

인민을 위한 명당자리

대성산기술에 넘쳐나는 인민의 웃음

대성산은 평양을 병풍처럼 감싸고 있는 비교적 높은 산이다. 예로부터 이 산은 풍치가 수려하여 관서일대의 명산으로 일컬어졌다.

대성산혁명렬사릉이 자리잡고 있는 주작봉마루에 올라 앉을 바라보면 평양시내가 한눈에 안고 오고 그 가운데를 가로질러 대성산변두리를 따라 유유히 흐르는 대동강이 큰 절줄기처럼 온몸을 시원하게 적셔준다.

소나무숲 우거진 대성산의 풍치에 반해 옛 사람들은 『룡신殿』이라고 불렀다.

예로부터 산수가 수려한 곳에 묘향산대옹전, 금강산신계사 등의 사찰들이 생겨난 것처럼 대성산에도 광법사가 자기의 천수백년력을 자랑하며 지금도 사람들을 반겨맞고 있다.

고구려가 평양으로 수도를 옮길 때 지은 안학궁터와 대성산의 유적들도 대성산의 운치를 더욱 돋구어준다.

이처럼 아름답고 력사유적도 많은 대성산지구에는 대문화유원지가 꾸려져 있어 인민의 대성산으로 이름 떨치고 있다. 이곳에 있는 중앙동물원과 식물원으로는 매일 같이 수많은 각계층 인민들과 학생 소년들이 찾아와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다. 그런가하면 18만여 m²의 드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대성산유회장에도 언제나 사람들로 흥성이 고개를 끊고 있다.

력사도 오랜 대성산의 남문앞 드

넓은 공지에서는 6.1국제아동절 날 즐거운 유희오락경기도 펼쳐지고 언젠가는 이곳에서 북남통일행사도 펼쳐져 내외의 관심을 모았다.

대성산을 이ルド는 인민의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는 문화유원지로 훌륭히 꾸려주신 분은 위대한 수령님들이시였다.

전후 그처럼 어려운 형편에서도 인민들을 위해 몸소 대성산유원지 건설을 발기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이시였다.

산수라는 말그대로 경치 좋은 명당이 되자면 산과 물이 꼭 있어야 한다고, 산에 물이 없으면 혼자 사는 훌바미처럼 자연경치도 조화를 이룰 수 없다고 하시며 물이 바른 대성산에 물길을 내기 위한 조치도 취해주시였다.

대성산에 물이 흐르던 그날 대성산에 물이 흐르니 풍치가 아주 좋다고, 이제는 산수가 겹비된 훌륭한 산으로 되었다고 기쁨을 금치 못해 하시던 어버이수령님.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심혈과 로고로

아름답게 가꿔진 대성산의 풍치를 더 한결 돋구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민족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더욱 빛내여 가시려는 숭고한 뜻을 암시하고 사리원시에 새로 건설된 민속거리로 돌아보시던 나날

으로 평양의 대성산성을 비롯하여 오랜 력사가 깃들어 있는 곳들에 력사교양마당을 많이 꾸리도록 하여야 한다는 귀중한 가르침을 주시였다.

그이의 발기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여러 차례의 현지지도에 의해 유서깊은 대성산지구에는 반만년 민족의 력사와 전통, 풍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대로 천연자박물관인 평양민속공원이 새로 옹진하게 꾸려지게 되었다.

최근년간 이 민속공원을 찾은 사람들의 수는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이곳에서는 민족의상을 입고 결혼식을 하는 신랑,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들도 자주 볼 수 있어 사람들의 기쁨과 정서를 더해 주고 있다.

본사기자 리경월



대성산유회장에서

온 그 어느 나라나 쉽게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구상에 위성을 제작하고 발사하는 나라가 몇개밖에 안되어 위성을 쏴올린 나라들도 거듭되는 실패를 통해 성공하였다는 사실은 이 일이 얼마나 힘에 부치는 어려운 일인가를 알 수 있게 한다.

조선의 무진막강한 국력을 과시하며 제작으로부터 발사에 이르기까지 100% 국산화된 인공지구위성의 성공은 최첨단을 향해 비약하는 공화국의 위력과 과학중시, 인재중시정책의 정당성, 생활력에 대한 뚜렷한 표시로 된다.

일찌기 과학기술발전을 중요한 국사로 내세우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을 받드

는 그 어느 나라나 쉽게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구상에 위성을 제작하고 발사하는 나라가 몇개밖에 안되어 위성을 쏴올린 나라들도 거듭되는 실패를 통해 성공하였다는 사실은 이 일이 얼마나 힘에 부치는 어려운 일인가를 알 수 있게 한다.

과학자들을 금싸래기처럼 아끼고 내세우시며 그들을 금방석에 앉혀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한없는 사랑과 크나큰 믿음을 과학기술발전의 원동력으로 되고 있다.

그이께서는 과학자들이 그리는 설계도면에 조국의 앞날이 그려지고 과학이 없으면 미래

김 해

온 나라에 소문난 작고도 큰 공장



평양시 락랑구역에는 크지 않은 한 공장이 있다. 그 공장이 바로 온 나라가 다 아는 락랑영예군 인수지일용품공장이다.

오래전 영예군인들이 모여서 자그마한 철제일용품공장으로 첫 출발을 한 이 공장은 오늘은 공장부지와 시설물들도 더 늘어나고 지난 시기와는 대비조차 할 수 없게 현대적인 건물과 흐름식 생활공정을 갖춘 전문수지일용품공장으로 확대 발전하였다. 현장에서 우리를 만난 강성필기사장은 『우리 공장은 원료

투입으로부터 제품생산에 이르기까지 자동화되어 있다. 현대적인 일터에서 일하는 보람이 그대로 노래가 되고 기쁨이 되고 있다.』고 자랑삼아 말하였다.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정결한 작업장마다에 주린이 들어선 기대들마다에서는 각종 규격의 수지용기와 수지판, 비닐박막, 고뿐을 비롯한 수지일용제품들이 쉬이 없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각종 수지일용품들은 질이 좋아 수요자들이 끌

없이 늘고 있으며 인민생활향상과 나라의 경제발전에도 특색있는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국가의 관심과 배려가 많았다고 한다.

강남의 지배인은 어버이장군님께서 나라가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하는 어려운 속에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 공장에 현대적인 설비들을 보내주시고 살림집과 천연색TV를 비롯한 온갖 은정과 배려를 다 돌려주신데 대해 이야기해주었다.

국가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 이 공장의 영예군인들은 공장의 주인된 영예와 자부심을 안고 생산건물들을 늘리고 설비들을

끊임없이 개선강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경제관리를 더욱 짜고들고 앞선 경영방법들도 새로 받아들여 생산능률을 더 높이고 공장의 수익을 최대로 끌어올려 종업원들의 생활증진을 크게 도모하였다. 공장종업원들의 수입은 지난 시기에 비할바없이 높아졌다. 하기에 사회적으로 이 공장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가고 있으며 전

◎ 락랑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을 찾아서 ◎

국의 곳곳에서 혁신적인 경영관리, 일본새를 배우려고 많은 사람들이 매일 같이 찾아오고 있다.

공장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더욱 가슴뭉클하게 느낀 것은 생산환경과 생활환경이 특별히 잘되어 있는 것이었다.

영예군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육체적으로 불편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현대적인 흐름식공정이 꾸려진 공장에서 노동자들은 큰 육체적부담이 없이 일하고 있었다. 그리고 공장구내에는 영예군인들을 위한 홀륭한 문화 후생시설들이 잘 갖추어져 있었다.

국가가 많은 돈을 들여 영예군인들을 위해 꾸려준 멋쟁이 문화후생건물은 우리의 발길을 저도 모르게 그쪽으로 끌려가게 했다.

홀륭하게 꾸려진 홀을

지나 1층을 돌아보니 영예군인들의 건강회복에 좋은 덕수와 초음파시설이 갖추어진 목욕탕과 물리치료실들이 있고 별풀목욕실이라는 것도 있었다. 김명실판관원의 말에 의하면 별풀목욕은 팔다리강직, 류마チ스관절염, 특발성피저치료에 특효가 있고 피로회복과 혈압안정, 스트레스해소, 부인파질병, 대상포진 등 여러 치료회복에도 좋아 영예군인들이 많이 찾는다고 했다.

2층에 올라가니 운동치료회복실에 설치된 달리기운동기재, 자전거운동기재, 노젓기운동기재, 허리근육발달운동기재, 상반신발달운동기재 등에서 영예군인들이 피로회복과 운동치료를 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운동치료회복운동을 금방하고 땀을 훔치던 최향순로동자

국가의 남다른 관심과 배려속에 아무런 불편없이 온갖 편의와 생활조건을 보장받으며 흥겨운 운동의 나날을 이어가는 이 공장 영예군인들의 복받은 삶을 부러워하며 우리는 공장정문을 나섰다.

본사기자 김철호



취재길을 이어가던 우리는 뜻사람들의 열렬한 박수속에 흔성2중창을 하는 강은하녀성을 쉽게 알아볼수 있었다.

얼마전 제15차 전국군로자들의 노래경연 가정부인부류에서 1등을 한 강은하녀성이 남편(김계승)과 함께 모란봉에서 산책을 하다가 그들을 알아본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것이다.

사람들속에 섞여 그들의 노래를 듣는 파정에 우리는 강은하녀성이 군사복무의 나날에 뜻하지 않게 부상을 당하여 영예군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영예군인의 몸으로 전국적인 노래경연에 참가하여 1등을 하며 오늘은 이렇게 만사람의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으며 기쁨의 노래를 마음껏 부르고 있는 강은하녀성.

그 무엇이 그에게 그렇듯 구김살없는 밝은 웃음과 노래를 안겨주었을까.

우리와 만난 강은하녀성은 부상당했을 때 처음에는 앞이 캄캄하고 고민도

구역이 멀쳐나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가는 곳마다에서 축하해주는 사람들보면서 행복의 눈물을 흘린 강은하녀성이다.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불구자들이 절망과 비애에 빠져 눈물과 한숨속에 사는 것이 태반이지만 늘 웃음속에 노래속에 살고 있는 강은하녀성을 보니 생각되는 바가 많았다.

인간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남의 불행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고 진심으로 서로 돋고 이끌며 화목하게 사는 사회주의 대가정의 품속에서 살기에 강은하녀성이 오늘 이렇듯 웃음속에 노래속에 생을 아름답게 꽂펴가고 있는 것 아니랴.

하기에 오늘도 강은하녀성은 한없이 고마운 어머니조국의 부강번영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하기 위해 들끓는 건설장들을 찾아 경제선동의 노래소리를 힘차게 울려가고 있다.

본사기자 강류성

취재길을 이어가던 우리는 뜻사람들의 열렬한 박수속에 흔성2중창을 하는 강은하녀성을 쉽게 알아볼수 있었다.

얼마전 제15차 전국군로자들의 노래경연 가정부인부류에서 1등을 한 강은하녀성이 남편(김계승)과 함께 모란봉에서 산책을 하다가 그들을 알아본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것이다.

사람들속에 섞여 그들의 노래를 듣는 파정에 우리는 강은하녀성이 군사복무의 나날에 뜻하지 않게 부상을 당하여 영예군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영예군인의 몸으로 전국적인 노래경연에 참가하여 1등을 하며 오늘은 이렇게 만사람의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으며 기쁨의 노래를 마음껏 부르고 있는 강은하녀성.

그 무엇이 그에게 그렇듯 구

김살없는 밝은 웃음과 노

래를 안겨주었을까.

우리와 만난 강은하녀성은 부상당했을 때 처음에는 앞이 캄캄하고 고민도

대담

상점거리의 활기찬 모습

소나무숲 우거진 청춘 거리를 따라 조금 지나면 아담한 멋쟁이 건물이 나진다. 최근 평양시민들 속에서 인기가 높아가고 있는 흥성고기상점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인민을 위한 또 하나의 봉사기지가 완공되었다는 보고

다. 그이의 유훈을 가슴에 새겨안고 군인건설자들이 짧은 기간에 흥성고기상점을 지금과 같이 화려히 일떠세웠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인민을 위한 또 하나의 봉사기지가 완공되었다는 보고

우리 상점에는 돼지고기를 가공하는 가공실이 갖추어져 있다. 고기가공실에서는 꽂바싸와 돼지갈비, 돼지발쪽, 돼지간, 돼지코훈제품을 비롯하여 돼지고기를 부위별로 가공한 19가지에 달하는 가공제품들을 만들고 있다.

돼지고기와 고기가공품들을 판매하는 2층에는 상품보관과 판매, 구매자의 요구에 맞게 진열장과 진열대, 진열도구들이 그흔히 갖추어져 있어 손님들이 좋아하고 있다.

3층식당에서는 고기가공실에서 나온 부산물을 가지고 순대국과 내포국을 비롯한 여러 가지 맛있고 특색있는 떡리를 봉사하고 있다. 4층에는 결혼식식당도 꾸려져 있으며 찾아오는 손님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한층

를 받으시고 상점준공식을 의미 있게 진행하도록 하시였다. 하여 우리 상점은 2012년 7월 청춘거리에 현대적인 상업봉사기지로서의 면모를 화려히 갖추고 봉사를 시작하였다.

기자: 이 상점에서는 어떤 제품들을 봉사하고 있는가?

리명옥: 평양시내에 만수교고기상점, 보통문

거리고기상점, 보통강수 산물상점을 비롯한 여러 고기상점들이 있지만 우리 상점에서는 다른 상점들과 달리 돼지고기와 그 가공제품을 전문으로 봉사하고 있다.

우리 상점에는 돼지고기와 고기가공실에서는 꽂바싸와 돼지갈비, 돼지발쪽, 돼지간, 돼지코훈제품을 비롯하여 돼지고기를 부위별로 가공한 19가지에 달하는 가공제품들을 만들고 있다.

리명옥: 우리 상점에서는 어떤 제품들을 봉사하고 있는가?

리명옥: 평양시내에 만수교고기상점, 보통문

거리고기상점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이런 고기상점이 평양시에 몇개 더 있으 면 좋겠다고 교시하시였

는 새로 일떠선 보통문거리를 고기상점을 현지지도하고 시민에게 고기상점이 평양시에 몇개 더 있으 면 좋겠다고 교시하시였

는 새로 일떠선 보통문거

리를 고기상점을 현지지도하고

시민에게 고기상점이

평양시에 몇개 더 있으 면 좋겠다고 교시하시였

는 새로 일떠선 보통문거

리를 고기상점을 현지지도하고

시민에게 고기상점이

평양시에 몇개 더 있으 면 좋겠다고 교시하시였

는 새로 일떠선 보통문거

리를 고기상점을 현지지도하고

시민에게 고기상점이

평양시에 몇개 더 있으 면 좋겠다고 교시하시였

는 새로 일떠선 보통문거

리를 고기상점을 현지지도하고

시민에게 고기상점이

평양시에 몇개 더 있으 면 좋겠다고 교시하시였

는 새로 일떠선 보통문거

리를 고기상점을 현지지도하고

시민에게 고기상점이

평양시에 몇개 더 있으 면 좋겠다고 교시하시였

는 새로 일떠선 보통문거

리를 고기상점을 현지지도하고

시민에게 고기상점이

평양시에 몇개 더 있으 면 좋겠다고 교시하시였

는 새로 일떠선 보통문거

리를 고기상점을 현지지도하고

시민에게 고기상점이

평양시에 몇개 더 있으 면 좋겠다고 교시하시였

는 새로 일떠선 보통문거

리를 고기상점을 현지지도하고

시민에게 고기상점이

평양시에 몇개 더 있으 면 좋겠다고 교시하시였

는 새로 일떠선 보통문거

리를 고기상점을 현지지도하고

시민에게 고기상점이

평양시에 몇개 더 있으 면 좋겠다고 교시하시였

는 새로 일떠선 보통문거

리를 고기상점을 현지지도하고

시민에게 고기상점이

평양시에 몇개 더 있으 면 좋겠다고 교시하시였

는 새로 일떠선 보통문거

리를 고기상점을 현지지도하고

시민에게 고기상점이

평양시에 몇개 더 있으 면 좋겠다고 교시하시였

는 새로 일떠선 보통문거

리를 고기상점을 현지지도하고

시민에게 고기상점이

평양시에 몇개 더 있으 면 좋겠다고 교시하시였

는 새로 일떠선 보통문거

리를 고기상점을 현지지도하고

시민에게 고기상점이

평양시에 몇개 더 있으 면 좋겠다고 교시하시였

는 새로 일떠선 보통문거

리를 고기상점을 현지지도하고

시민에게 고기상점이

평양시에 몇개 더 있으 면 좋겠다고 교시하시였

는 새로 일떠선 보통문거

리를 고기상점을 현지지도하고

통일의 앞길을 환히 밝히는 불멸의 원칙

오늘은 역사적인 7·4 공동성명이 발표된 때로부터 43돐이 되는 날이다.

주체 61(1972)년 7월 4일 조국통일 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북남 공동성명의 발표는 외세에 의해 오랜 세월 민족분열로 가슴아픈 리별과 고통을 당해온 북파 남의 온 겨레에게 조국통일의 크나큰 신심과 락관을 안겨준 뜻깊은 사변이였다.

1970년대초 내외정세발전의 요구를 깊이 통찰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폭넓은 북남협상방침을 제시하시여 북파 남사이의 고위급정치회담을 마련하시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7·4 공동성명이 발표되도록 하시였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은 조국통일문제를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민족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근본립장과 근본방도를 천명한 조국통일의 초석이다. 7·4 공동성명이 발표됨으로써 조국통일문제를 민족의 단합된 힘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었으며 우리 겨레는 뚜렷한 기준을 가지고 통일운동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갈수 있게 되었다.

공화국정부는 지난 40여년간 7·4 공동성명에 천명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꾸준하고도 인내성있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조국통일 3대원칙을 구현하고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공

명정대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과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민족대단결 5대방침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해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해온 사실이 이것을 실증해준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은 우리 겨레의 조국통일 운동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다.

해내외 온 겨레는 통일의 앞길에 그 어떤 난관이 조성된다 해도 조국통일 3대원칙과 북남공동선언들을 조국통일운동의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통일애국투쟁을 줄기차게 벌려나가야 한다.

조국통일 3대원칙을 구현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루하기 위한 투쟁은 애국세력과 매국세력, 민족자주세력과 외세의존세력 간의 치열한 투쟁이다.

말로는 지난 시기 북남간의 모든 합의들을 『존중』한다고 곧잘 외워온 현 남조선보수당국은 지금 외세의존과 전쟁책동, 민족내부의 불신과 반목조성에 혈안이 되어 날뛰고 있다. 상전의 발뒤꿈치에 매달려 동족에 대한 『제재』를 구걸하고 유엔의 보자를 쓴 『북인권사무소』라는 대결기구까지 남조선에 끌어들이는 보수파당의 망동이 자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사대매국행위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 그런가하면 외세와 악합하여 해마다 북침전쟁연습을 여러차례에 걸쳐 감행하고 민족화합과 통일을 요구하는 남조선의 통일애국세력을 『종

복』의 감투를 씌워 가차없이 탄압하는것이 바로 현 남조선당국이다. 온 겨레는 반통일세력의 이렇듯 악랄한 동족대결책동을 짓부시고 조국통일 3대원칙과 그것을 구현하여 새 세기 조국통일의 리정표로 발표된 역사적인 북남공동선언들을 철저히 고수리행하기 위한 정의의 통일애국투쟁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민족자주와 배치되는 외세와의 『공조』를 단호히 배격하고 사대매국세력을 고립화시켜 매장해버려야 한다.

민족의 평화통일지향에 역행하여 열핵전쟁의 겸은구름을 몰아오는 내외반통일호전세력의 전쟁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반전평화수호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야 한다.

온 민족의 대단결은 조국통일의 결정적답보이다.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공동의 리익을 앞세우고 하나로 굳게 단결하여야 한다.

조국통일의 구성이시고 민족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여 민족의 앞길은 창창하며 조국통일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북파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조국통일 3대원칙과 그 구현인 북남공동선언들을 철저히 관철하여 자주통일의 역사적위업을 반드시 성취하고야말것이다.

김철민



6·15 공동선언리행을 요구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남조선당국의 반공화국도 발책동이 날로 무분별한 단계에 들어서고있다.

내외의 한결 같은 반대규탄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그 무슨 유엔 『북인권사무소』라는 모략기구를 설치한 남조선당국의 책동으로 하여 지금 북남관계는 최악의 상태에 빠져들고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남조선당국은 공화국과 비법적인 무역 활동을 하였다는 당치않은 리유로 외국인들과 기업들에 독자적인 『대북금융제재』를 가하는 망동을 부리였다.

이것은 공화국에 대한 가장 극악한 도발이며 북남관계와 조선반도정세를 수습할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가는 엄중한 대결책동이다.

알려진것처럼 공화국은 조국해방 일흔돐이 되는 올해에 어떻게 하나 북남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을 이루하기 위해 정조부터 할수 있는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하였다.

더우기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발표 15돐을 맞으며 공화국정부성명을 통해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밀에 위기에 처한 현 북남관계를 수습하고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원칙적립장과 공명정대한 방도를 천명하였다.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북남사이의 『대화』와 관계개선을 바란다면 공화국의 호소에 귀

를 기울이고 이에 역행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할것이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유엔 『북인권사무소』를 서울에 설치하다 못해 나중에는 독자적인 반공화국 『제재』로 도전해나고있다.

이것이야말로 공공연한 북남관계파괴책동, 극히 무분별한 동족압살광풍이 아니고 무엇인가.

반공화국 『제재』책동은 미국이 공화국을 경제적으로 질식시켜 나중에는 삼켜버리기 위한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일환이다.

이러한 미국의 반공화국 『제재』책동에 적극 추종하다 못해 이제는 독자적인 『제재』망동까지 부리고있는것은 대결광란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남조선당국의 독자적인 반공화국 『제재』책동은 파국에로 치닫는 현 북남관계정국을 동족압살에로 이어감으로써 『체제통일』야망을 실현하자는는데 그 불순한 목적이 있다.

남조선당국은 반공화국 『제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똑똑히 알고 헤덤비는것이 좋을것이다. 『제재』는 곧 대결이고 전쟁이다.

남조선당국이 반공화국 『제재』책동이 가져올 엄중한 후파를 무시하고 분별있게 처신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던진 돌이 제 발등을 까는 결과밖에 가져올것이 없다.

주광일

기습타격을 노린 륙, 해, 공군과 해병대의 합동상륙훈련을 벌려놓았다.

남조선당국이 이른바 『제2의 연평해전』이라고 떠들어대는 지난 2002년 서해사건은 6·15통일시대의 흐름을 막아보려는 남조선군부호전세력들의 무분별한 도발행위로 하여 발생하였다.

당시 국도의 도발광기에 들뜬 남조선군부호전세력들은 미국의 부추김밀에 공

는것으로서 공화국의 달로 강화되는 군사적위력에 질겁한자들의 허세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또한 동족과 한사코 무력으로 대결하며 북침의 도화선에 어떻게 하나 불을 달려 한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더우기 남조선에서 광란적으로 벌어지고있는 불장난소동은 보수당국이 추구하고있는 반공화국압박공세를 배경으로 하여 벌어지는것으로 하여 더욱 엄

발사돌음을 또다시 벌리고 미국의 핵잠수함 『미시간』호를 부산에 끌어들여

내부를 공개하는 허세를 부린것도 남조선당국이 추구하는 반공화국압박공세의 일환이다.

현 『정권』이 출현한 후 지금까지 공화국의 성의있는 노력과 애국애족의 조치에 의해 북남관계개선의 기회가 여러번 마련되었지만 그것이 응당한 결실을 맺지 못한것은 바로 북침 전쟁소동과 반공화국대결에 집요하게 매달려온 남조선당국의 도발행위 때문이다.

실현불가능한 『체제통일』야망에 사로잡혀 상대를 집어삼킬것만 꿈하는 남조선당국의 무모한 망동은 북파 남사이의 대립을 심화시키고 전쟁위험만 증대시키고있다.

민족내부에 대결과 전쟁을 추구하는 집단이 있는 한 진정한 북남대화가 있을수 없고 더우기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북남관계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은 자명한 리치이다.

남조선당국이 민족의 화해와 평화지향에 역행하여 계속 대결과 전쟁의 길로 나간다면 역사와 민족의 준엄한 철족을 면치 못하게 될것이다.

김연희

패전이 『승전』? 무엇을 추구하는 놀음인가

중하다.

북남관계개선과 평화보장을 위한 공화국의 성의 있는 노력을 외면하고 어리석은 『체제통일』망상에 사로잡힌 남조선당국은 그 누구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운운하며 대결소동을 계단식으로 확대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이 내외의 한결 같은 반대규탄에도 불구하고 반공화국모략기구인 유엔 『북인권사무소』를 서울에 설치하고 『북의 변화와 대화유도』를 위한 『강한 압박』을 떠들며 독자적인 『대북금융제재』에 나선것이 바로 그려하다.

6·25를 계기로 『북전역타격』을 노린 미싸일시험

히 떠오르군 한다.

반세기이상 얼어붙었던 불신과 대결의 두터움하였다. 비록 남조선은 얼음장을 깨뜨리고 7천만겨레가 그처럼 바라던 북남 6·15통일시대가 드디어 도래되어 온 삼천리 강산은 통일열기로 세차게 끓어번졌고 금강산에

을 출몰랐다.

통일의 환희와 격동으로 들끓었던 6·15시대와 대결과 전쟁의 불안으로 이어진 지난 몇년간의 판이한 현실은 북남공동선언을 교수하고 철저히 리행해나가는 길에 민족의 미래가 있고 조국통일의 지름길이 있다는 진리를 다시금 깊이 새겨주고있다.

북파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일치단결하여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 말살하려는 남조선반통일세력들의 그 어떤 책동도 절대로 용납하지 말고 단호히 짓뭉개버려야 한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가목사자구협회 회장 박순자

끌고가려고 하는지.

백성들이 얼마나 살기 힘들고 피로우면 삶을 저마다 포기하여 남조선이 자살률에서 세계1위를 차지하고있겠는가.

박근혜 『정부』 3년간 『국무총리』만 하여도 6차례나 바뀌운 한가지 사실만으로도 『정권』의 부폐성과 혼란성을 잘 알수 있다고 본다.

우리는 민족통일의 대강인 6·15공동선언발표 15주년을 맞으면서 잊을수 없는 이날을 영원히 기억할것이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 따라 우리의 소원이고 꿈에도 그리는 통일을 위하여, 민족공동의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통일운동을 계속 힘차게 벌려나갈것이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무순시지부장 김옥순

병진로선 – 아무리 훼방해봐야…

얼마전 새로 시작되는 제17기 《민주평통》 회의에 참가한 남조선집권자가 《민족의 미래를 불안》하게 하고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 한다느니 뛰니 하며 공화국의 핵보유를 또다시 악랄히 시비중상하고 핵포기를 협박하였다.

공화국의 핵에 정신이 상증이 생겼는지 입만 열면 핵, 핵 하는 그의 괴팍서니는 사람들에게 환멸을 금할수 없게 한다.

도대체 공화국의 핵과 병진로선에 대해 알면 얼마나 알고 제가 민족의 미래를 생각이나 하며 말하고 있는가.

공화국의 핵은 그 누구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철저히 자위의 억제력이다. 미국의 반세기이상에 걸친 핵위협, 적대시압살책동이 없었다면 공화국이 굳이 핵을 만들 필요를 느

지난 1일 남조선당국은 공화국의 존엄과 체제를 악랄하게 중상모독하는 《북인권백서 2015》를 발간하는 놀음을 벌려놓았다.

한마디로 이것은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체제에 대한 구악한 정치적도발이며 북남대결을 최극단으로 몰아가는 반민족적인 망동이다.

《북인권백서》라는 것은 남조선의 통일연구원이 인간쓰레기로 전락한 일부 《탈북자》들을 찾았더니며 죽어 모은 허위증언파들을 엮어낸 극악한 반공화국 《인권》 보략문서이다.

《탈북자》들이 남조선 정보원의 각본에 따라 여기저기 돌아치며 공화국을 헐뜯는 허위증언들을 늘어놓고 있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악질 《탈북자》인 신동혁이도 지난 기간 자기가 유엔무대

끼지 않았을 것이다. 공화국을 핵보유에 떠는 것은 다름아닌 미국이고 그에 아부굴종하여 남조선을 동족을 치기 위한 외세의 핵전시장으로 만들어놓은 남조선의 호전세력이다.

오늘도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은 평화를 원하는 공화국의 진정어린 호소를 거부하고 대규모북침핵전쟁연습강행, 전략핵무기의 남조선과 그 주변해역에로의 전개 등 시시각으로 공화국을 위협하고 조선반도에 핵전쟁위험을 몰아오고 있다.

이런 속에서 공화국이 핵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고 병진로선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너무도 정당하고 선견지명있는 행동이 아닐수 없다. 공화국의 자위의 핵억제력에 의해 적대세력의 침략책동이 물거품이 되고 이 땅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이 굳건

히 수호되고 있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너무도 명백한 사실이다. 민족의 밝은 미래도 민족공동의 재부인 공화국의 자위의 억제력에서 온다.

그런데도 핵을 포기하고 병진로선을 철회하라는 것은 북이 스스로 무장해제하고 침략을 고스란히 당하라는 소리외에 다른것이 아니다. 누가 그따위 잡고내 같은 소리를 듣겠는가. 민족의 의향과 리익의 견지에서가 아니라 제국주의 침략자인 미국의 말을 고스란히 되받아야하는 남조선집권자의 행동은 역스러움만 자아낸다.

지금 공화국은 병진로선의 덕택으로 국방력을 최대한 실현성있게 강화하면서도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놀라운 성과들을 이루하고 있다. 이것은 병진로선의 정당

성과 무궁무진한 위력과 생활력에 대한 뚜렷한 과시로 된다.

동족대결에 환장하여 북의 모든것을 거꾸로 보는데 습관된 남측위정자들의 눈에는 세상이 인정하는 이것이 보이지 않는가.

누가 뭐라고 해도 공화국은 자기의 결심을 추호도 흐트리지 않을것이며 자기가 가는 길을 끝까지 갈것이다. 그것이 자기자신과 민족을 위해 너무도 옳은 길이고 최후승리의 곧바른 길이기에.

병진로선을 아무리 훼방하고 온갖 감언리설을 다한다 해도 현실은 달라질수 없고 오히려 그 입만 아플것이다.

남조선당국은 이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그리고 민족의 오늘과 미래를 생각하며 현명한 처신을 해야 할것이다.

정학준

밀에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해치고 제도를 전복하기 위한 히로행위까지 서슴지 않는 남조선당국이 그 누구에 대해 《인권》이요 뭐요 하는것은 공화국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고 우롱이다.

남조선당국은 터무니없는 모략자료를 내돌리며 동족을 혐오풍기 전에 반인민적악정과 파쑈폭정으로 남조선을 세계최악의 인권불보지, 아비규환의 생지옥으로 전락시킨 범죄행위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남조선당국은 도발적인 인권모략소동으로 얻을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자멸만을 재촉하게 될것이라는것을 똑똑히 명심하여야 한다.

본사기자 현은경

조선전쟁은 자기의 침략력에서 단 한번도 패한적이 없다는 《강대성》의 신화가 깨지고 미국이 서산락일의 운명에 굴러떨어진 처참한 비극이 있었다.

그것을 《북에 의한 남침》으로 여론화하여 저들이 감행한 조선전쟁도발의 성격을 와전시키고 조선반도평화파괴의 주범인 저들의 정체를 가리우기 위해서이다.

마치 일본에 대한 원자탄투하가 세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케

7월 27일 공화국이 전승

조선전쟁은 미국이 남조선보수세력을 추동하여 도발한, 우리 민족에게 강요한 북침전쟁, 조선정복전쟁이였다.

그것을 《북에 의한 남침》으로 여론화하여 저들이 감행한 조선전쟁도발의 성격을 와전시키고 조선반도평화파괴의 주범인 저들의 정체를 가리우기 위해서이다.

마치 일본에 대한 원자

탄투하가 세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케

7월 27일 공화국이 전승

조선전쟁은 미국이 남

조선보수세력을 추동하여

도발한, 우리 민족에게 강

요한 북침전쟁, 조선정복

전쟁이였다.

그것을 《북에 의한 남

침》으로 여론화하여 저

들이 감행한 조선전쟁도

발의 성격을 와전시키고

조선반도평화파괴의 주범

인 저들의 정체를 가리우

기 위해서이다.

그것을 《북에 의한 남

침》으로 여론화하여 저

들이 감행한 조선전쟁도

발의 성격을 와전시키고

조선반도평화파괴의 주범

인 저들의 정체를 가리우

기 위해서이다.

그것을 《북에 의한 남

침》으로 여론화하여 저

들이 감행한 조선전쟁도

발의 성격을 와전시키고

조선반도평화파괴의 주범

인 저들의 정체를 가리우

기 위해서이다.

그것을 《북에 의한 남

침》으로 여론화하여 저

들이 감행한 조선전쟁도

발의 성격을 와전시키고

조선반도평화파괴의 주범

인 저들의 정체를 가리우

기 위해서이다.

그것을 《북에 의한 남

침》으로 여론화하여 저

들이 감행한 조선전쟁도

발의 성격을 와전시키고

조선반도평화파괴의 주범

인 저들의 정체를 가리우

기 위해서이다.

그것을 《북에 의한 남

침》으로 여론화하여 저

들이 감행한 조선전쟁도

발의 성격을 와전시키고

조선반도평화파괴의 주범

인 저들의 정체를 가리우

기 위해서이다.

그것을 《북에 의한 남

침》으로 여론화하여 저

들이 감행한 조선전쟁도

발의 성격을 와전시키고

조선반도평화파괴의 주범

인 저들의 정체를 가리우

기 위해서이다.

그것을 《북에 의한 남

침》으로 여론화하여 저

들이 감행한 조선전쟁도

발의 성격을 와전시키고

조선반도평화파괴의 주범

인 저들의 정체를 가리우

기 위해서이다.

그것을 《북에 의한 남

침》으로 여론화하여 저

들이 감행한 조선전쟁도

발의 성격을 와전시키고

조선반도평화파괴의 주범

인 저들의 정체를 가리우

기 위해서이다.

그것을 《북에 의한 남

침》으로 여론화하여 저

들이 감행한 조선전쟁도

발의 성격을 와전시키고

조선반도평화파괴의 주범

인 저들의 정체를 가리우

기 위해서이다.

그것을 《북에 의한 남

침》으로 여론화하여 저

들이 감행한 조선전쟁도

발의 성격을 와전시키고

조선반도평화파괴의 주범

인 저들의 정체를 가리우

기 위해서이다.

그것을 《북에 의한 남

침》으로 여론화하여 저

들이 감행한 조선전쟁도

발의 성격을 와전시키고

조선반도평화파괴의 주범

인 저들의 정체를 가리우

기 위해서이다.

그것을 《북에 의한 남

침》으로 여론화하여 저

들이 감행한 조선전쟁도

발의 성격을 와전시키고

조선반도평화파괴의 주범

인 저들의 정체를 가리우

기 위해서이다.

그것을 《북에 의한 남

침》으로 여론화하여 저

들이 감행한 조선전쟁도

발의 성격을 와전시키고

조선반도평화파괴의 주범

인 저들의 정체를 가리우

기 위해서이다.

그것을 《북에 의한 남

침》으로 여론화하여 저

들이 감행한 조선전쟁도

발의 성격을 와전시키고

공화국의 인권 실상

인권에 대한 바른 견해

인민 사랑의 정치가 실시되고 있는 공화국에서 사람들은 정치와 경제, 문화 등 사회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참다운 인권을 마음껏 향유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이 허황한 『북인권 문제』라는 것을 조작하고 날로 더욱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공화국의 참다운 인권은 심히 외곡되고 있다.

거짓과 진실은 어디에 있는가? 이를 바로 알기 위해 공화국에서의 인권 정책과 역사, 현실, 국제 인권 협약의 의무履行 등에 대한 흥철화 사회과학원 법률연구소 소장의 견해를 아래에 련재 한다.

* *

우리 나라에서는 사람 중심의 과학적인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인권에 대한 정확한 견해와 입장장을 가지고 있다. 공화국은 우선 인권을 자주적 권리로 간주한다.

인권이란 말그대로 인간의 권리인 것 만큼 그 본질은 마땅히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인간은 자주성을 본성으로 하고 있으며 그것

을 실현하기 위한 권리가 바로 자주적 권리 즉 인권이다.

자주성을 본성으로 하는 사람의 자주적 의사와 요구를 담지 못하고 그것을 실현해 주지 못하는 권리는 고유한 의미에서의 인권이 아니다. 이것은 결국 사람의 자주적 본성이 기초하지 않는 인권에 대한 론의 무의미하며 사람의 자주성 실현을 떠난 인권의 옹호 실현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인간의 본성에 대한 비과학적, 반동적인 판점에서 출발한 『인권』에 대한 견해는 그것이 어느 나라에 의하여 주장되든, 어느 국제문건에서 『확인』 되었든 정당화될 수 없다.

공화국은 또한 인권이자 국권이라고 주장한다.

인권이 국권이라고 할 때 그것은 국가 자주권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구상의 모든 나라 인민들은 자기가 사는 나라에서 국가의 제도적 및 법률적 보밀에 자주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권리인 인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것은 인권이 그 어떤 다른 나라나 국제기구의 간섭이나 혼란에 의해서가 아니라 세계 각국의 민족의 자주권에 의하여 보장되고 담보된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어떤 나라가 자기의 국가 자주권을 상실당하는

경우에 그 나라에 있는 인민들의 인권과 인권보장에 대하여론하는 것은 한갓 지상공론으로밖에 될 수 없다.

지난날 우리 나라의식민지자와 현시기 이라크를 비롯하여 세계의 여러 나라들에서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감행되거나 초래된 인권유린행위들이 이를 명백히 실증해 주고 있다.

인권과 국권 문제는 순수 리론상의 문제가 아니라 주권 국가의 운명과 관련되는 심각한 정치법률적 문제이다. 때문에 『인권옹호』의 간판 밑에 벌어지는 그 어떤 나라나 국제기구의 내정 간섭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경각성을 높이고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공화국은 또한 인권을 인민대중의 권리로 본다.

인민대중은 자연과 사회의 온갖 구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살며 발전하기 위한 참다운 권리 즉 자주적 권리 를 요구하며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힘 있는 창조적 능력의 소유자이다. 인민대중의 요구는 사회 공동의 요구를 대표하며 사회적 집단의 대성원들의 요구와도 일치하다. 그러므로 인민대중에 의해 제기되고 실현되는 인권은 집단의 요구와 집단을 이루는 개별적 성원들의 요구를 다같이 실현하

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권으로 되는 것이다.

계급적 대립과 불평등, 차취와 억압이 존재하는 나라들에서는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다같이 실현하는 진정한 인권 리념이 나올 수 없으며 또 그러한 나라들에서 나온 인권은 사회의 절대 다수를 이루는 인민대중의 인권으로 될 수 없다.

『인권 표본국』처럼 행세하는 미국에서만도 퍼부색이 겸하고 하여, 돈과 권력이 없다고 하여 얼마나 많은 인민대중이 사회적 구박을 당하고 인권을 참혹히 짓밟히고 있는가.

인민대중의 자주적 권리 를 옹호하고 빛내주는 것, 그 권리 를 침해하고 빼앗으려는 적대세력의 준동을 단호히 짓부시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공화국의 진정한 인권에 대한 견해이다.

공화국은 또한 인민이 좋아하면 그것을 곧 공정한 인권기준으로 인정한다.

그 어느 나라에서나 참다운 인권을 요구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것은 인민들이며 인권 상황이 좋은가 나쁜가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도 인민들이다. 인민들의 자주적 요구와 지향을 반영하고 실현시켜주는 기준이 진정한 인권기준이며 인민이 좋아하면 그것이 공정하고 참다운 인권기준으로 되는

되며 여기에 반드시 출장을 놓게 된다. 이렇게 음식상에 잔을 놓는 의례라는데로부터 잔치라는 말을 쓰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가정의례 때 반드시 잔을 놓고 의례를 진행한다고 하여 잔치라는 말을 쓰는 것이다.

본사기자

되며 여기에 반드시 출장을 놓게 된다. 이렇게 음식상에 잔을 놓는 의례라는데로부터 잔치라는 말을 쓰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가정의례 때 반드시 잔을 놓고 의례를 진행한다고 하여 잔치라는 말을 쓰는 것이다.

『내 손주녀석은 물맛이 좋은 수정샘물을 찾아선 제 동무들끼리 표주박으로 떠나서 좋았던가에 나도 한개를, 허허...』 하며 물을 떠마시는 시늉을 하였다.

『내 명이 손주녀석이 물을 볼 때 까진 이어져야 할 텐데, 허허...』

하경의 익살맞은 통말이었다.

『어랍쇼, 육십 두 체

것이다.

세계에는 수많은 국가들이 있으며 국가들마다 정치제도와 역사, 풍습, 경제, 문화 발전 수준과 생활 방식이 서로 각이하다. 그런 것만큼 인권기준은 어디까지나 매개 나라 인민들의 요구에 맞게 설정되어야 한다.

공화국 정부는 인권 보장을 위한 공정한 기준을 설정하고 인민들에게 사회적인 간의 모든 권리 를 전면적으로 보장 해 주고 있다. 우리 인민은 실생활 체험을 통하여 공화국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인권 보장을 위한 기준이 자기들의 자주적 권리 를 실현하고 담보해 주는 진정한 기준, 공정한 기준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미국과 그 충종 세력들이 내세우고 강요하는 『인권기준』은 남을 깔보고 억누르며 지배하려는 제국주의적인 사고판점, 가치판, 생활 양식이 구현되어 있는 반동적인 인권기준이다.

이러한 『인권기준』이 공화국에 적용될 수 없으며 그것을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거나 공화국과의 관계 발전을 위한 전제로 내세우는 것은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

사회과학원 법률 연구소 소장 흥철화

록의 홍상차림

록의 홍상차림이란 우리 나라의 젊은 여자들이 지난날 폐복으로 입던 연두저고리와 다흥치마 또는 그것을 입은 차림새를 말한다.

력사기록에 새색시의 웃자림에 대하여 『삼회장록두저고리에 홍치마』라고 한 것으로 보아 록의 홍상차림을 하는 풍습이 오래 전부터 있었다. 평안도를 비롯한 서해안지방에서는 새색시가 첫 날웃으로 연두회장 저고리에 홍치마를 많이

허성철

속의 약효

여름이면 우리나라의 산과 들에는 영양 물질과 약성분이 있으며 향기와 단맛을 내는 좋은 풀들이 많이 돌아나온다.

우리 조상들은 더위 속에서 농사일이 계속되는 여름철에 영양가와 약효가 높은 풀들을 뜯어다가 가공하여 먹음으로써 잡병을 물리쳤으며 건강을 보존하였다. 그 중에는 쑥도 있다.

쑥은

우리 나라의 그

어디에나 있는 다년생풀이다.

쑥에는 단백질과 당질, 광물질과 여러 가지 비타민 등 사람 몸에 좋

나니냐!

가족들이 또 독을 까부서버리니 아니나다를 가 소대가리가 순조롭게 나왔다. 이때 로인이 대성통곡하기 시작하였다.

『아이구, 내가 이렇게 나이가 먹어 이제 몇 해를 더 살지 못하겠는데 내가 죽은 다음에는 너희들이 누구의 도움을 받겠느냐?』

이때였다. 말탄 여인 군사들이 먼지를 일구며 급히 마주오고 있었다. 급급히 비켜서니 땅에 화락 젖고 한껏 지친 기색이 완연한 군사들이 말발굽 소리로 끝까지 놓았는데 차림새로 보아 전하의 시위 군사들인 듯하였다.

그런데 인차 뒤따라서 또 다른 여인의 말탄 군사들이 장검을 꺼내들고 앞선 군사들을 쏘아보며 질풍같이 따르고 있었다. 추적 군사들이 분명하였다.

『쫓기우고 쫓는 군사라?』

무엇인가 의문을 짚게 하였다. 더우기는 개경이 지척이고 보면 도시 불안한 마음을 달랠 길 없어 오래도록 선채 지나는 길손들에게 개경의 형편을 물어보았다. 숨가빠 지나던 길손이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으나 분명 란이 터져 지금 송도장안이 온통 끓고 있소이다.』 하며 황황히 지나가는 것 같았다.

손동과 하경은 길손의 엄청난 소리에 와들썩 놀라며 한참이나 마주보았다. 『... 할아버지, 할아버지, 어디에 있으오니까. 제 새동이와요.』

흡침 소리가 나는 그쪽으로 눈길을 돌리는 하경의 낯색에서 심증을 가늠한 손동이 말을 전했다.

잔치란

말의 뜻

부어들면서례식을 진행한다. 그것은 면 옛날 사람들이 술을 신성한 것으로 일러오면서 맹세, 축하, 약속 등의 뜻으로 인식한 것과 관련된다.

이때 사람들은 전통적인 풍습대로 잔에 술을

(1)

글 박민한, 그림 김윤일

간에서 떠도는 흥홍한 소문처럼 장차 나라의 종묘사직에 칼질을 하고 통상을 타고 앉을 그런 역신일가?』

『두고 볼 일이긴 하오

만 인륜을 범하고 어찌 그

런짓까지야.』

『〈위화도회군〉 후에 보위에 올랐던 두 임금님을 저버린 건 사실이지만 지금껏 통상엔 분명히 1389년에 등극하신 왕씨 성의 전하께서 계시는 상황에서야 헛된 풍문일 수도 있지.』

『그렇긴 한데... 하여

간 날도 저물었으니 가까

운 주막에나 들리세. 우리

처럼 늙고 명약한 몸들에

야 때식을 제때에 하는 것

이 보약일세. 허허...』

『아무렴, 병은 쇠면 랑

페례를 가늠할 수

없는게 죽음일세. 허

허...』

『내 손주녀석은 물맛

이 좋은 수정샘물을

찾아선 제 동무들끼리

으로 떠나서 좋았던가에

나도 한개를, 허허...』

『허...』

『허...』